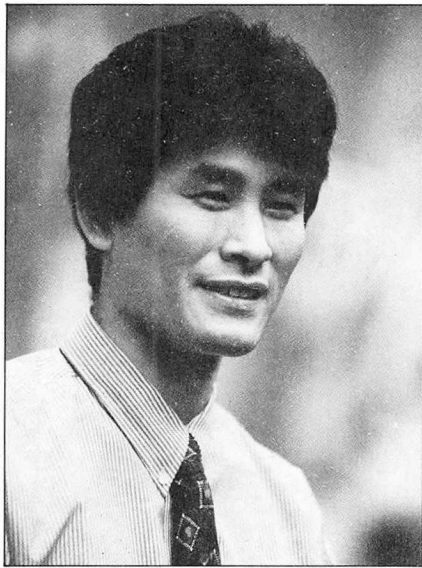


'김대중' 사례 통한 언론비판

「김대중 죽이기」 펴낸 강준만 교수



읽기에 숨이 찬 책이다. 전북대 신방과 강준만 교수가 최근에 내놓은 「김대중 죽이기」(개마고원)란 책은 그 제목만큼이나 그동안 무관심했거나 둔감했던 각종 문제, 특히 '악마적 권위'를 휘두르고 있는 언론의 심각성에 대한 재인식을 강요하고 있어서 쇼킹하다.

책의 머리말은 '근질긴 언론'에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김대중은 복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화두처럼 던지면서 시작된다. 강 교수는 "이 물음을 놓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쇼'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질문은 "애초부터 성립이 불가능한 질문"이라고 못박는다.

"김대중의 복귀는 김대중이 결정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건 마치 교도소에 갇힌 사람에게 언제 출소하겠느냐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다……. 탈옥이라도 하라는 말인가? 탈옥에 대비해 저격수들까지 대기시켜 놓은 판에……."

강준만 교수는 이 책에서 '김대중'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우리나라 언론과 그 주위의 정객들, 소위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즉 "언론과 지식인이라는 '감독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에선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김대중이라는 사례를 통해 부각시키고 있다.

강준만 교수의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은 특히 날카롭다. 그는 "조선일보가 한국 정치를 다루는 방법의 부당함"에 대해

지적한다. "조선일보가 김영삼을 지지하고 김대중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건 조선일보의 권리이며 그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삼는 건 그 방식이 전혀 정당당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건 중상모략과 음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김대중이 물러나면 지역문제가 해결된다"던 지식인, 종교인, 언론의 '왜곡된 지역관'도 강 교수는 비껴가지 않는데, 그의 지적은 차라리 '폭로'다. 강준만 교수가 제시한 물증이 바로 국무위원급과 차관급 48명 가운데 호남출신은 장관 1명, 차관 2명 해서 단 3명에 지나지 않았던 지난해 12월의 개각 인사분포. "지역문제 해소와 관련하여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방식이 쉬쉬 덮어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강준만 교수는 "그건 은폐지 해결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책에서 비판적으로 거론된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면서도 '인간성 제일주의'를 경계해야 학문이 발전할 것이라는 강 교수는 이제부터라도 "생산적인 논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성수 기자

걸출한 중국 문인들의 문학현장 탐방기

「중국문학기행」 펴낸 허세욱 교수



이태백, 두보, 소동파, 백거이...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중국 문인들의 문학 원류를 찾아서 양자강 줄기를 흘러내려갔던 허세욱 교수(62, 고려대 중문학과)가 「중국문학기행」(중앙일보사)을 건져올렸다.

장장 6천 킬로미터의 양자강 상류에서 하구까지, 북으로는 북경, 남으로는 계림, 서로는 서안, 동으로는 산둥까지 그 광활한 산하에 찍혀 있는 시인묵객들의 족적을 더듬고 있는 이 책은 크게 양자강 상류와 화북지역, 양자강 중류, 양자강 하류, 화남지역으로 구분하여 걸출한 중국 문인들의 문학작품의 고향을 탐방, 그들의 문학세계와 당시 역사를 조명하고 있다.

"국내 예술가들이 윤선도가 살았던 해남 지방이나 정철의 「관동별곡」의 배경이 되는 강릉지방에서 그들의 자취를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중국 문인들의 문학현장을 나의 지식과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허교수는 16살 때부터 한문을 공부했고, 외대 중국어과를 거쳐 국립대만사범대학 중문과에서 중국시를 전공한 관계로, 언젠가는 소동파나 도연명을 찾아 답사여행을 떠나겠다는 각오가 돼 있었다고 한다. 88년 가을, 40년 동안 꼭꼭 잠겼던 중국 문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연구실에 커다란 중국 지도를 한장 걸어두고 매일같이 지명을 외우는 것으로 마음을 달랬더니 그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가 문학지식과 현장을 연결하는 일종의 '수학여행'을 떠난 것은 88년부터.

객원교수로 지내던 상해 복단대(復旦大)와

서북대(西北大), 사천성의 중점(일류)대학인 서남사대(西南師大)에서 집과 교통편을 제공해주는 등 '살가운' 배려를 해주어 한결 수월하게 여행할 수 있었다.

"답사여행을 해보니 위대한 문학가들의 고향은 두메나 시내, 동산 정도라면 그쳐서 '비범'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작품으로는 아름다웠는데...허무함을 느꼈지요. 그렇지만 '모든 위대는 평범이 낳는다'는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환장할 정도로" 소원하던 여행을 끝내고 4년만에 완성한 이 중국기행은 그에게 있어 너무나 값진 보물이다. 책으로 엮어내기 전에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역사산책」에도 연재했었는데 지금도 그 지면을 기억하는 팬들이 많다.

허교수의 왕성한 필력은 올 초 여름에 출간될 「중국문화 근대사」와 「실크로드 문학기행」(가제)에서도 드러날 전망이다.

—배은희 기자

1994 한국출판문화상 아동부문 출판상

동아출판사
TEL: 861-4818/853-5608

영역별 연령별 아카데미 유아교육동화

유아교육동화 **아카데미**로 아이를 영재로 키우세요!

아카데미 유아교육동화는 이렇게 꾸며졌습니다.

- 1 MBC 유아프로그램 '뽀뽀'의 작가 조문현 선생님이 집필
- 2 국내 최고 일러스트레이터 20명의 생생한 그림
- 3 전체 60권을 3~4세용 30권, 5~6세용 30권으로 단계별 구분
- 4 각 단계를 인지, 사회성, 정서, 탐구력, 언어발달의 다섯영역으로 세분화
- 5 각권마다 유아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 '함께 보는 어른에게 수록'

전 60권 • 3~4세용: 30권(값120,000원) • 5~6세용: 30권(값120,000원) • 날권 판매 가능: 각권 4,000원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유아 그림책의 차별화 선언!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요리책

「요리하는 남자가 아름답다」 펴낸 노유경씨

“남자가 부엌에서 얼쩡거리면 안된다”는 말은 이제 옛말. 바야흐로 현대는 ‘틀’을 깨는 즐거움을 찬양하는 시대다.

「요리하는 남자가 아름답다」(나우미디어)를 펴낸 노유경씨(28, 방송스크립터)도 이 얘기에 찬동하는 사람이다.

“현대사회에서 남자가 요리할 줄 아는 능력을 갖췄다는 건 크나큰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남성들의 능력 중에서 요리가 아주 특별한 등급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올테니까요.”

유교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고정관념을 깨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이 요리책은 실제 요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 활용도가 높다. 특히 발벗고 부엌에 들어선 남성들의 요리비법과 살아가는 이야기를 에세이 형태로 수록한 장은 이 책이 주는 또다른 재미이다.

맛보는 요령, 각종 요리기구 다루는 법 등 처음 부엌에 들어서서 요리에 익숙해지기까지 초보자들이 숙지해야 할 항목을 다룬 ‘요리입문’편을 거치면, 곧 이 책의 ‘핵심’인 ‘요리실전’편이 펼쳐진다.

여느 요리책과 달리 아내가 친정에 갔을 때 혼자 해 먹을 수 있는 솔밥·에그피자·더덕구이 등의 요리며 시장에 가기 싫을 때 냉장고를 뒤져서 해먹을 수 있는 마파두부·콩나물 잡채 등을 소개하는 등 각 ‘상황’별로 요리방법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요리는 자신을 표현하는 일도 되지만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긴밀하게 하는 아주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나 새로운 일을 구상할 때, 그리고 창조적인 일을 다시금 시작할 때는 무엇보다 상황에 맞춰서 “잘 먹으라”고 한다. 남성이라고 빼지 말고 적절한 요리를 대접하고 함께 먹으면서 대화한다면 그가 원하는 기회는 무궁무진하다는 얘기가.

따라서 노씨는 그 ‘상황’을 무척이나 중요시하면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어울리는 요리를 130가지나 맛깔나게 내어놓고 있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에게 쇠고기전골과 대구찜, 출근하기 바쁜 아침에는 나물죽과 달걀토마토부침, 피곤한 저녁에는 낙곱전골과 봄나물해물초, 많이 차려도 표 안나는 집들이에는 쇠갈비떡찜과 낙지냉채 등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설정한 상황 및 엄선된 요리법을 소개한다.

「남편은 요리사」라는 TV프로에 참여하면서 요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는 노유경씨. 이 책을 쓰는 동안 무뚝뚝한 동갑내기 경상도 남편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하고 물어올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배은희 기자

재미와 성실성 갖춘 ‘온가족용’ 환경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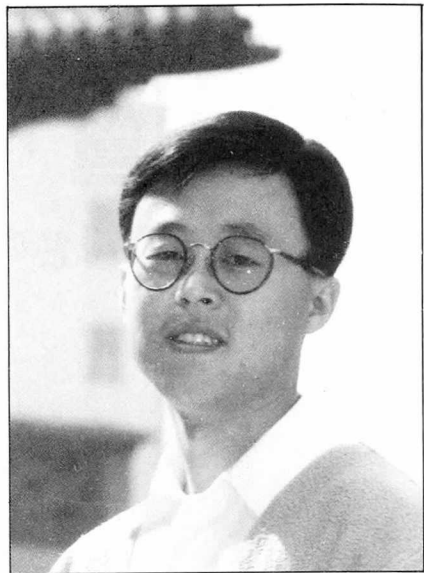
「지구는 우리들의 집」 펴낸 이창형씨

대체로 환경문제는 행복한 화제가 못된다. 근본적으로 거대 산업사회를 해체하지 않는 한 모든 시도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데까지 결론이 이르면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체념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게 마련이다.

이창형(35)씨가 최근에 펴낸 「지구는 우리들의 집」(한빛)에는 ‘그럴수록’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이라는 생각이 구석구석에 용해돼 있어 읽는이에게 호감을 준다. 이 책은 물과 공기와 땅의 오염은 물론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산성비, 체르노빌 참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환경문제를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다. 국민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일반인까지 돌려보는 ‘온가족용’ 환경도서라 부를 만한데, 상세한 도표와 우스꽝스러운 일러스트가 ‘들여다보는’ 즐거움을 준다.

“사실 여기 실린 내용들은 서구의 경우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는 상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피상적으로만 홍보돼 왔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자기 컵을 반드시 가방 뒤에 매달고 다니는 독일 학생들의 예를 볼 때 우리 환경인식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씨는 조경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베를린공대에서 유학하며 환경정책을 전공했다. 그때 일주일에 이틀씩 베를린 도시녹지설계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환경문제에 깊은 애정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귀국 후 아태환경경영연구원에도 몸담은 바 있으며 현재 자유환경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씨는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는 고슴도치가 살고 멧돼지 가족이 출현한다”며 서울의 공해와 조정실태에 유감을 표한다.

이 책의 말미에는 ‘초록을 위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도시에 초록색을 심자”는 제안이 실려 있다.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에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심으면 실내 공기도 맑아지고 아이들의 정서에도 좋다. 건물의 외벽에 덩굴식물을 심으면 두터운 잎 때문에 벽이 보호될 뿐 아니라 추위와 더위까지 차단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변화에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씨는 지적하고 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유리섬유 폐기물 때문에 두 사람이 죽고 여러 사람이 암과 투병중이라는 기사가 손바닥만하게 실린 것을 읽었습니다. 그보다 충격적이고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기사야말로 일면 톱이 돼야 합니다. 순전히 ‘인식’의 문제죠. 인식이 바뀌어야 모든 것이 뒤따라 바뀝니다.”

이 책에 뒤이어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을 쉽게 풀이한 책을 써볼 생각이라며 이씨는 소탈하게 웃는다.

—한 강 기자

사회 윤리의 제문제

J 레이첼즈 엮음/황경석 외 옮김/512면/10,000원

성과 도덕, 임신 중절, 남녀 평등, 시민 불복종, 범죄와 처벌, 전쟁과 도덕, 자살과 죽음 등의 현실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도덕적 주장이나 논증을 철학적 관점에 입각해서 분석한 책으로 도덕 철학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철학에의 초대

S.M.오너, T.C.헨트 지음/곽환환 옮김/352면/6,000원

문제 중심의 연구 방향을 취하면서 특정의 흐름이나 성향을 강조하지 않고 객관적 시각에서 기존의 철학적 사고의 유형들을 소개한 시사적이고 간결한 철학 입문서로서 철학을 시작하는 학생이나 일반 독자를 위해 씌어졌다.

해석학의 철학

O. 피겔러 지음/박순영 옮김/384면/8,500원

해석학의 철학은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 대상이 서로 불가분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의식을 일깨워 주는 철학적 성찰이다. 이 책은 해석학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의 안내서로 평가받고 있다.

철학적 탐구

L.비트겐슈타인 지음/이영철 옮김/334면/8,500원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중 한 사람이며 분석 철학의 전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비트겐슈타인의 대표적 저작으로, 의미, 이해, 명제, 논리의 개념, 수학의 기초, 의식의 상태 등에 대한 생각을 다루고 있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